

불가능한 인간, 끝까지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사사가-

사사기 2:11-17, 마태복음 18:21-22

정운돈 목사님

서론 :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1)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권의 책의 내용이 모자이크와 같을 때가 많다. 모자이크는 가까이에서 부분적으로 보면 전혀 알 수 없고, 멀리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그림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성경도 그런 부분이 많다.

① 성경을 보고 부분적으로만 적용하면 안 맞을 때가 많다. 전체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흐름, 복음의 흐름, 구원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안 그러면 혼란스럽다고 느끼게 된다. 어떤 말씀을 수십 번을 읽어도,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오늘 사사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1장에 보면 유다 자손이 시므온 자손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온다. 왜 유다가 시므온 자손을 데리고 가서 그러는 걸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다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런데 시므온을 왜 데리고 가야 할까?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상대가 자기 여동생을 범하는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거짓으로 속여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이 그대로 하여 고동소리위하는 틈을 타서 죽여 버렸다. 할례는 구원의 징표 아닌가. 그런데 시므온은 구원의 표시인 할례를 악용해서 살인을 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모습이 많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예전에는 착하다는 표시였다. 그렇게 해 놓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았다.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을 만났는데, 자신에게 피해를 주던 사람들이 그 전 교회 사람들이었다고 했다.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인정해야 한다. 누구를 손가락질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기업과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업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 그래서 유다, 그리스도께서 같이 가자, 정복하자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그것이 사사기 1장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도 그런 부분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아야 한다.

② 또, 오히려 거부감을 주는 대목도 보인다. 사사가 모두 훌륭하고 완벽한 것이 아니었다. 정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사가 있는가 하면, 짧게 몇 줄 나온 사사도 있다. 30년 동안 아들 30명 낳고 죽은 사사도 있다. 먹고 살고 자식 낳고 죽은 것이다.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제도 없고 잘한 것도 없이 살다가 죽었다. 사사 중에는 문제를 일으키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한 사람도 있다. 입디는 말을 잘못 했는데,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향으로 갈 텐데, 그때 처음 보는 사람을 잡아다가 반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와 보니 자기 딸이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상징이다 하면서 아닌 것처럼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왜 그랬는가? 인신제사의 문화가 당시에 팽배해 있었던 것이다. 그게 종교혼합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구분 못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당시 가나안의 우상숭배 문화가 깊이 젖어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자기 딸을 반제로 드려서 감사할 수 있는냐, 성경은 이상하다, 교회 못 가겠다 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러지 않아도 주일성수하기 싫고 놀러가고 싶고 현금하기 싫은데, 딱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을 발견했으니 성경을 덮어 버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다. 복음은 자신을 죽여서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났으니, 사람을 만나면 '당신 속에 마귀가 역사하나 그리스도를 부르짖어야 해!' 한다. 그것은 내세울 게 없는데 복음 하나 깨달았다는 것으로 나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말 개인을 사랑한다면 합부로 표현할 수 없다. 겸손하게 진정성을 표현하게 되어 있다. 주님은 자신을 죽여 나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미숙하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니까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하면 안 된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부딪히고 도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한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오해가 되는 부분이 나온다.

(2)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또 목회자에게 질문해야 한다. 목회자도 다 아는 게 아니다. 목회자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그리스도로 끝나 버렸다고 공부도 끝나 버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읽는 것에 착념(着念)하라고 했다. 복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의 고민과 문제, 구원의 문제가 끝났다는 것이지, 공부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았다. 정복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았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란다.

1. 사사기 전체 이해

(1) 사사기의 기록 목적 : 사사기의 내용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인다. 나중에 보면 레위인 제사장이 첩을 얻는다. 그 첩이 음행을 하기 위해 도망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첩을 너무 사랑했다. 본처는 신경을 안 썼던 것인지, 본처에게도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데리고 첩을 찾으러 갔는데, 첩의 아버지가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며칠을 계속 있게 했다. 3일을 계속 있다가 저녁에 도망쳐 나온다. 왜 그랬을까? 아마 돈을 달라는 이유였을 것 같다. '아, 뭔가 뜯어내려고 하는구나. 도망가야지.' 그래서 도망을 갔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지역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는데, 그 동네에 있던 깡패들이 하필 동생애자였던 것 같다. "방금 들어간 레위인을 내놓아라." 그

러니까 그 레위인 대신 첩을 내놓았다. 이 여인이 집 앞에서 죽어 버린다.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이 그 시체를 잘라서 열한 개의 지파에 보냈다. "이 행동을 베냐민 지파가 했다." 그러니까 온 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항의를 했다. 이 문제는 제사장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원니스가 안 된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하고 반대하고 몰아내고 죽이는 데에는 원니스가 된다. 베냐민 지파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해야 할 것인데 회개를 안 한다. 결국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시킨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열한 지파가 비로소 회개한다. 지파 하나를 없애야 되겠느냐, 우리의 딸들을 보내서 이 지파를 살리자 한다. 왜 그랬을까?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사사기는 12가지 문제에서 빠져 있는 세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마지막에 이 사건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사사기를 기록한 인물을 사무엘로 보고 있는데, 사무엘이 왜 사사기를 정리했을까?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다. 사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직을 겸직했던 사사들이 있었던 시대도 이랬는데, 왕을 세우면 얼마나 더 문제가 생기겠느냐 하는 의도였던 것이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는데, 첫 번째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다. 베냐민 지파에게는 모든 사람이 빛을 진 게 있었다. 또 사울이 외모적으로는 멋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사사, 인간의 왕은 그들을 구해줄 수 없었다. 그런 모든 과정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왕, 우리의 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결론 모든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알고 사사기를 보면 재미가 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무슨 의미인가 싶을 것이다.

(2) 사사기의 의미 : 사사기는 그 이름부터 혼란스럽다. 재판관, 판관기 하고 번역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재판하는 모습도 별로 안 나온다. 하지만 사사기는 12가지 재앙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이런 일 저런 일,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고 하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이 보인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과 인생도 사사기 못지않다. 다 복잡하다. 더 문제가 많고 헛갈리는 것도 많고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많다. 직장생활을 하면 이상한 상관이 많다. 교회 안의 생활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목사님들도 그렇다. 사사와 비슷하다. 힘센 사사가 누구인가? 삼손이다. 그 삼손이 이웃 동네에 가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서 왔다갔다 하면서 다닌다. 그런데 다니다가 사자 한 마리를 봤다. 힘이 남아돌아서 사자를 때려죽였다. 다음에 보니까 입에 꿀이 들어 있었다. 그것을 부모님에게 가져다드린다. 그리고 나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한다.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 맞춰 보라." 자기만 아는 문제를 가지고 낸 것이다. "너희가 맞추면 의복 30벌을 주겠다. 못 맞추면 너희가 내게 의복 30벌을 내야 한다." 동네 사람들이 이 문제를 도저히 알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삼손의 애인을 찾아가서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게 한다. 답을 내니까 삼손이 화가 나는데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나?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의복을 취 버린다. 그렇게 한 후에 그 사람들이 자기 애인을 꼬셔서 답을 알게 되었구나 하고 알게 된다. 그래서 또 복수를 한다. 생각해 보라. 자기가 꺼내고, 자기가 열 받고, 자기가 또 때려죽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고 목사도 그렇다. 대통령, 도지사, 시장이 그렇게 행동한다. 교수, 학교 선생님이 그렇다. 앞뒤가 안 맞는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헛갈리던 것은 것이다. 원래 인간이 다 그렇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다. 다 헛갈린다. 완벽하지 않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삼손 같은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3) 사사기의 주인공 : 또 여 사사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장군을 선택해서 전쟁에 이기게 한다. 그런데 바락은 남자인데 소심하고 용기가 없으니까, 드보라가 힘을 줘서 이기게 한다. 적에게는 900대의 철병기가 있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사실 사사라는 직책은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영적, 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담당한 지도자였다. 이 사사는 참 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온다. 13명이라고도 하고 12명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도 놓여주기는 해야 할 것 같다.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어도 일단은 대통령이니깐.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민족으로부터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적을 물리치는 역할을 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사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흑암 저주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깨부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믿기만 하면 된다. 신약의 주님은 구약과 다르다. 구약시대에는 바로 때렸다. 요즘은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으신지 바로바로 안 때리신다. 오히려 기다리시고 복을 주신다. 건망증 때문이겠는가? 아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가 온 것이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어릴 때는 이유 없이 맞는 친구들이 많았다. 학교에서도 그랬다. 선생님이 사도님하고 싸우면 열 받아서 학교에서 우리를 두들겨 팼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우리는 긴 세대다. 부모님에게 시달렸는데 부모가 되니까 이제는 자녀에게 시달린다. (웃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끝까지 보살펴주시고 응답을 주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확실히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잘못해도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복을 주신다. 망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

2. 사사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사사기 스물한 장은 30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300년이 조금 넘는 세월이다. 사울 왕이 나오기까지 50년 전의 일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몇 가지를 발견해야 되겠다.

(1) 첫째로,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녀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① 그래서 사사기 안에는 전쟁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피나는 전쟁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을 안 하는가? 지금도 휴전 상태다. 우리 아버지도 북한에서 피난 온 분이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가정에도 전쟁 같은 고역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포로생활을 직장 속에서 하고 있을 수 있다. 지금도 우리 모습이 비슷하다. 사업을 할 때도 그렇다. 우리 개인의 내적 상태, 가정, 사회, 국제관계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우리의 생명, 삶, 재산, 영도를 지킬 수 없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② ‘쫓아내지 못하였다라, 쫓아내지 않았더라.’ 하는 말이 많이 보인다. 우리도 능력이 없어서 나쁜 습관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 가끔 SNS에 보면, 청소년들이, “이제부터 내가 욕을 안 할 거야, 욕을 하면 나를 때려줘.” 한다. 우리 때도 얼마나 욕을 많이 했던지 모른다. 두 마디를 하면 세 마디가 욕이다. 지금 만나도 그렇다. “야, 너희들은 이버지가 되었는데도 욕을 그렇게 하니. 언어 순화 좀 해라.” 그렇게 말한다. 습관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중독, 영적 문제, 성격, 바랄 수 없다. 우리의 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려는 것이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각인, 뿌리, 잘못된 모든 부분이 쫓겨나게 되기를 축원한다.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아도 세월이 가 보면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도 거듭난 부분들이 많다.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많이 달라져 있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어느 날 대폭발하게 될 것이다. 혈압 말고 전도 (웃음)

③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 한다. 사사기 2:11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조금만 좋아지면 또 다른 것을 섬긴다. 우리 모습이 그렇다. 사사기 3:7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 물질, 다산의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시는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셨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각종 고기와 산해진미를 주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마르게 하실 때가 있다. 세상에는 다양한 추가 많다. 참치일 거짓기술, 썸스 스페셜, 많이도 있다. (웃음)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많다. 그런데 그게 육적인 것이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한다. 사사기 3:12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매를 때릴 정도로 악을 행한 것이다. 사사기 4:1에,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수백 명의 청소년들을 양육해 보았다.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이면서 훌륭한 일을 하는 놈을 한 명도 못 봤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다. (웃음) 목사님 눈에 자주 안 보이고 대화 안 하고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해 훌륭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부모님이 눈을 피해야 할 때, 선생님 눈을 피해야 할 때 훌륭한 일을 하는 적이 없다. “왕들이 눈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죄악된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된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의 흐름까지 바꿔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틀, 울무, 함정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희망 없는 존재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오직 주의 은혜, 십자가 도의 능력으로, 새 것이 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 나쁜 성격과 여러 육신적인 부분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

(2)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 버리는 것이 인간임을, 하나님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해야 하고, 날마다 다름방 해야 하는 것이다. 목회자, 교회학교 교사, 이런 모든 지도자가 영적으로 나의 사사다. 가까이 지내고 함께 말씀운동을 해야 한다. 사명자와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은 치유되고 사명자가 된다. 그 은혜 받는 현장, 훈련 받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승리의 방법이다.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분이 있으면 자꾸 물어보아 한다. 남의 구역이라도 가서 물어보고 포럼하라. 굉장히 은혜가 풍성해진다. 사사기 2:18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였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더라.” 복음 가진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이며 질서다. 사사기 2:19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3) 세 번째 교훈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는 한 명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스승이요 지도자요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마이너스만 되지 않아도 훌륭한 분이 아니다. 직장 상사, 학교 선생님, 목회자, 다 마찬가지다. 목회자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는 것과 힘들게 만드는 것 합해 보면 0이다. 목회자도 그렇게 부족하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은혜 되는 것만 붙잡고 승리하라.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살려라. 훌륭한 사람

도 있지만 부분적이다. 너무 기대하고 너무 비판하고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다. 상처와 분열만 일으킬 뿐이다. 인간은 온전한 존재가 없다. 좋은 점만 본받고 나쁜 점은 갱신하고 기도해 주면 된다. 기드는 사사를 보라. 미디어가 너무 어려움을 줬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다. 빼앗기지 않도록 몰래 농사를 짓고 몰래 추수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 “네가 이 민족을 구해라.” “그러면 증거를 보여 주세요.”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 그 양털 주변만 마르고 양털만 이슬에 젖게 해 달라고 했다. 그대로 되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양털만 마르고 주변이 다 젖게 해 달라고 했다. 그대로 되었다.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다. 혼자 방아찼어 먹고 살던 조난한 사람이었고 믿음도 별로 없었다. 훌륭한 사람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만. 입다도 그렇다. 기생의 아들이었다. 나라가 어려웠지니까 기생의 아들이라고 집에서 쫓아냈다. 그런데 입다가 나가서 강배들과 팀을 구성해서 살았다. 그런 출신의 사람이었다. 딸도 반계로 드렸다. 삼순도 마찬가지다. 힘만 세지 명칭해서, 눈까지 뽀뽀하 정신을 차렸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도 있었다. 복음 안에서 우리 후대들 중에 그런 대통령, 장관,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사사기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끝까지 쫓아가서 나의 신부로 삼을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일이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승리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아닌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완성하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도, 민족도, 나라도 회복시켜 주셨다.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게 붙잡아 주실 것이다.

결론 : 영적 치유, 삶의 치유를 받는 방법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 주시는 영적 치유와 삶의 치유를 받을 수 있겠는가?

(1) 아주 중요하다. 진정한 사사인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지도자로, 왕으로 믿고,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정확하게 하고 고백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다. 신분을 바꿔야 한다. 마귀의 자녀는 재앙, 저주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 버리면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히려 돌봐 주시고 선물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일흔 번째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신다고 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

(2)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양에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을 수 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어렵다.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를 정말 받았다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용서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21-22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 지니라.’” 490번까지 세어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이다.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많았지만,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아는 용기있는 백성이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잘못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 탓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절대 갱신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다. 아무리 여러분이 잘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다. 억울한 일을 억울하다 하고 이를 잡고 끝까지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찾아서, 오히려 나를 더 겸손히 갱신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란다. 정말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생각만 해도 여러분은 새롭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훌륭한 민족이다. 사사기 10:15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주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리라.’” 제가 잘못했으니 때리려면 때리세요 하는 말이다. “오직 주께 구하오니, 오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사람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상관 앞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기를 바란다.

(3) 결국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교회도 나라도, 이 세상의 법과 제도와 사상을 가지고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후대, 종지자들이 일어나서, 세상 법, 세상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는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야 비로소 흑암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를 살리며, 이 복음을 가지고 237개 나라까지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결론의 메시지를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치유 서밋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시 한 번 진실되게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메시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참된 치유와 해방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